

부모간의 갈등 및 성인애착에 따른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The Impact of Parents' Marital Conflict and Adult Attachment on College Students' Ego-Resiliency

천안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전임강사 이 영 미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민 하 영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학과
전임강사 이 윤 주

Division of Social Welfare, Cheonan University
Lecturer : Lee, Young-Mi
Dept. of Child, Catholic Univ. of DaeGu
Assistant Professor : Min, Ha-Yeoung
Dept. of Education, Catholic Univ. of DaeGu
Lecturer : Lee, Yoon-Joo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parents' marital conflict and adult attachment on ego-resiliency among college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three hundred sixty six undergraduate students (118 men and 248 women) enrolled in a university in Gyeongbuk Province. Survey questionnaires were used to measure parents'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the students, adult attachment, and ego-resiliency. Data were analyzed by means, standard deviations, t-tests, one-way ANOVA, Scheffé test,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s.

Results a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1) Male students' ego-resiliency level was higher than female students'. (2) Students' ego-resiliency was higher in the group whose parents remained married than in the group whose parents did not. (3) The level of parents'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student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ir ego-resiliency. The level of adult attach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tudents' ego-resiliency. (4)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dult attachment was more influential on college students' ego-resiliency than parents' marital conflict as perceived by the students.

▲주요어(Key Words) : 부모간의 갈등(parents' marital conflict), 성인애착(adult attachment), 자아탄력성(ego-resiliency)

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학생활에 접어든 청년들은 중고등학교의 '주입과 획일'의

교육 환경에서 벗어나 '자율과 선택'이라는 새로운 대학 교육 환경에 적응(지선근·한종철, 1999)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적 기대와 발달 과업에 부응하여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고 향후의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변화된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고 발달 과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청년은 많은 긴장과 갈등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적응의 문제를 겪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 개인은 자신의 내적 긴장과 갈등을 늦추고 해소하며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처

* 주 저 자 : 이영미 (E-mail : selfdis@hanmail.net)

** 교신저자 : 민하영 (E-mail : mhycd@hanmail.net)

할 수 있는 조절 기능과 적응 능력이 요청된다.

적응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은 자아 강도, 정서적 안정성, 자기 효능감, 내구성, 자기 조절력 등을 성공적인 적응의 긍정적인 요소로 연구하였는데 '자아탄력성(ego-resiliency)' 역시 이런 맥락에서 형성된 구성개념(박현진, 1996)이다. 자아탄력성이란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역경 혹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행동적·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해가는 아동들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개념으로(Block & Block, 1980) 개인이 환경의 요구에 따라 긴장을 인내하면서 자아통제수준을 조절하는 역동적 능력을 의미한다(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낮은 상황에도 잘 적응할 수 있고(Block & Block, 1980),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성실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경험에 개방적이며 병리적 문제가 더 적다(Robins, John, Caspi, Moffitt, & Stouthamer-Loeber, 1996)고 평가되었다.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경우에는 낮은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이 부족하여 적응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Block & Block, 1980).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외적·내적 긴장에 맞서 유연하고 풍부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개인의 일반적인 능력(Klohn, 1996)으로 대학생이 대학 생활의 크고 작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 적응하고 성인기로의 발달 과정을 거치는데 있어서 자아탄력성이 적응적 성격 자원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을 탐색한다면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부모-자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 중 가장 기본적이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관계이므로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가정과 부모의 영향이 무엇보다 클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가정환경의 부정적 측면인 부모간의 갈등은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널리 확인되었기에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간의 갈등과 자녀의 자아탄력성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 사회적 능력, 건강, 학업 성취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권영옥·이정덕, 1999; 양희정, 1999; Amato & Keith, 1991; Gottman & Katz, 1989, 1993; Grych & Fincham, 1990). 청소년 대상의 연구들도 부모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청소년이 부적응을 나타낸다는 일관된 결과(김환복, 1984; 나철·이길홍·민병근, 1984; Harold & Conger, 1997)를 보고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부모간의 갈등이 낮은 가정에서 대학생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부모간의 갈등 및 부모자녀관계라는 가족과정은 대학생의 적응에서 중요한 요인(유희정, 2001)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부모간의 갈등은 갈등의 차원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각기 검토되었다. 연구들에 따르면 아동이 부모간의 갈등에 더 많이 노출

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권영옥·이정덕, 1999; 양희정, 1999; Cummings, Zahn-Waxler & Radke-Yarrow, 1981; Wiersma, Forehand & McCombs, 1988) 부모간의 갈등의 강도가 높을 때 부정적 영향(양희정, 1999; Cummings, et al., 1981; McClosky, Figueredo & Koss, 1995)이 뚜렷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부모간의 갈등해결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갈등이 해결되는 정도나 방식에 따라 다른데(권영옥·이순형, 1999; Cummings, Pellegrini, Notarius, & Cummings, 1989; Cummings, et al., 1981) 부모간의 갈등이 해결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아동에게서 부정적 정서나 행동문제가 덜 나타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즉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부모는 자녀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 사회적 능력과 대처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갈등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긴장이 지속되어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이상과 같이 부모간의 갈등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부모간의 갈등은 대학생 자녀의 자아탄력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므로 부모간의 갈등과 대학생 자녀의 자아탄력성간의 관계를 직접 탐색하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개인의 적응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애착과 자아탄력성간의 관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착이란 부모나 친구와 같은 특정인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적 유대로서 정의되는데(Armsden & Greenberg, 1987; Paterson, Field & Pryor, 1994) 애착과 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Armsden & Greenberg, 1987; Kenny & Rice, 1995; Lapsley, Rice & FitzGerald, 1990)은 일관성 있게 부모에 대한 안정적 애착은 더 높은 자기존중감, 더 큰 인생만족, 더 나은 대학생활 적응, 더 적은 심리적 괴로움, 그리고 더 큰 지각된 사회적 지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제안하였다(장희숙, 2002). 아동의 경우 안정애착 유아는 발달적 과제를 더 적응적으로 해결해 나간 반면 불안정 애착 유아는 후기 아동기에서 의존심의 증가, 낮은 사회적 유능감, 자아탄력성이 낮은 것과 관련해 과제해결에 어려움을 보인다(Sroufe, Carlson, & Schulman, 1993)고 하였다. 애착 관련 연구는 영아기나 아동 초기에 집중되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애착의 연구는 1987년 Hazan과 Shaver가 Ainsworth(1969)의 성인애착 3유형에 근거하여 최초로 성인애착 척도를 개발하면서 성인애착 유형에 대한 연구들도 나오기 시작하였다. 성인애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성인의 애착 유형에 따라 자아탄력성이 차이를 보여 안정 애착 유형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고(고은정, 1997; Kobak & Sreey, 1988), 불안정 애착 유형의 성인은 부정적 감정이 낮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적응력 및 유능감을 보다 많이 나타냈다(Kobak & Sreey, 1988)고 보고되었다. 이처럼 성인의 경우에도 애착이 적응에 긍정적 요소로 기능하고 안정적 애착 유형이 개인의 자아탄력성과 긍정적으로 관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불어 부모 및 가족관련 변인과 자

아탄력성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도 성인애착과 자아탄력성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가정의 심리적 성장환경이 자아탄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장경문, 2003), 가정의 심리적 성장환경은 여대생의 자아탄력성과 의미 있는 상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가정 내의 자유, 의사소통, 상호친밀, 집단응집, 사랑, 존경, 수용이 높을 때 자아탄력성이 높았고 전통고수, 성취강조, 물질지향이 높을 수록 자아탄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적인 청소년과 그렇지 못한 청소년의 부모가 가진 특성을 탐색한 연구는 탄력적인 청소년의 부모는 이해심이 많고 지지적이라는 결과(Werner & Smith, 1982)를 제시했다. 또한 가정환경 면에서 위험요소(예, 부모의 낮은 학력, 가족구조의 결손, 부모의 실업,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지각 등)이 높지만 적응이 높은 청소년들을 탄력적이라고 규정하고 부모와의 애착을 살핀 결과 적응이 유연한, 즉 탄력적인 청소년들의 부모애착 점수는 적응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보다 더 높았다(박지아, 2003). 한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자아탄력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이은미·박인전, 2002)에서도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양육 행동과 의미 있는 상관이 있었고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어머니의 돌봄 및 아버지의 돌봄과는 의미 있는 상관이 있었고 어머니의 과잉통제 및 제한과는 약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아버지의 과잉통제 및 제한과는 거의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성인애착의 연구는 대개 애착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들(고은정, 1996; 김지현, 1998; 신노라, 2000; 이귀선·정남운, 2003)이 있을 뿐 성인애착과 자아탄력성간의 관계를 직접 탐색한 연구는 드물다. 선행연구에 의할 때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자녀의 자아탄력성과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성인애착이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성인애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인애착이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관계는 성의 원리가 강하게 작용(옥선화, 1985)하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서 부분적으로 성차가 나타났고,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자아탄력성간의 관계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났던 점(이은미·박인전, 2002)을 고려할 때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의 이혼과 같은 가족구조 변화는 청년의 행동문제 및 적응문제와 관련되고(Needle, Su, & Doherty, 1990) 부모의 학력이나 가정환경에 따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나 기대가 다르다(Maccoby, 1980)는 점은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대학생의 부모 및 가족의 요인이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대학생 시기는 이전까지 지속되던 부모에 대한 의존과 동일시를 벗어나는 시기이고 심리적 이유기로 표현되기도 하므로 그러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성별 및 학년이나 부모의 학력 등에 따라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관련 특성에 따라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고자 하며 이어서 부모간의 갈등, 성인애착과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가족관련 특성과 부모간의 갈등, 성인애착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설명력을 검토하고자 한다. 적응적 성격 자원, 심리적 보호요소로 기능하는 자아탄력성의 발달에 관련된 변인을 탐색함으로써 결국 대학생의 적응에 관련된 변인들을 규명하게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관련 특성에 따라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부모간의 갈등 및 성인애착과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및 부모관련 특성과 부모간의 갈등, 성인애착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대구시에 소재하는 D대학에서 남녀대학생을 임의표집하였으며 2003년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 사이에 자료가 수집되었다. 아동학이나 교육학을 전공한 대학원생들이 대학 구내에서 질문지를 배부한 후, 응답이 끝난 후 바로 수거하였다. 조사된 자료 중 응답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366명(남자 118명, 여자 248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남자에 비해 여자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조사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1>과 같다. 전체 366명 중 대학교 1학년이 약 47%(172명)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31.4%(115명)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연령은 평균 20.50세(표준편차=2.08)였고 중앙값은 20.00세 최빈치는 19.00세였다. 여학생이 67.8%(248)로 남학생이 32.2%(118명)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56.2%로 가장 많았고 다음 중졸, 전문대졸이상의 순이었다. 아버지의 학력도 고졸이 5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문대졸, 중졸 순이었다. 부모의 결혼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87.01%로 대다수 이었으며 이혼이나 별거, 사별을 경험한 경우가 12.9%였다.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	범주	N	%	변인	범주	N	%
학년	1	172	47.0	부모의 결혼 상태	함께	317	87.01
	2	115	31.4		이혼혼자	21	5.8
	3	49	13.4		이혼재혼	2	.5
	4	30	8.2		별거	10	2.7
성별	남	118	32.2	사망혼자	11	3.0	
	여	248	67.8		사망재혼	3	.8
모의 학력	중졸	103	28.9	부의 학력	중졸	63	17.5
	고졸	200	56.2		고졸	191	53.2
	전문대졸이상	53	14.9		전문대졸이상	105	29.2

2. 조사도구의 구성

전체 질문지는 부모간의 갈등 척도와 성인애착 척도, 자아탄력성 척도와 응답자의 배경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1) 부모간의 갈등 척도

자녀가 지각한 부모갈등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Grych, Seid와 Fincham(1992)이 개발한 갈등 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ersonal Conflict Scale: CPIC)를 기초로 도구를 구성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가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지각되는 부모갈등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3점 척도로 6개 영역의 5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한국판 CPIC 타당화 연구에 사용한 문항 중 부모갈등의 빈도와 강도, 해결에 관한 문항을 선정하고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그렇다(3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응답가능 범위는 16-48점이다. 부모간의 갈등의 빈도(6문항), 강도(6문항), 해결(4문항)에 관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부모간의 갈등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 이었다(갈등빈도 $\alpha = .62$, 갈등강도 $\alpha = .73$, 갈등해결 $\alpha = .64$). 이 연구의 대상들이 지각한 부모간의 갈등의 평균은 26.44, 표준편차는 5.27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간의 갈등이 심한 것으로 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성인애착 척도

성인애착을 평가하는 척도로 Collins와 Read(1990)가 제작한 RAAS(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가 있는데 이 척도를 박은경(1993)이 번안한 성인애착 척도는 총 18문항으로서 친밀, 의존, 불안의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친밀, 의존의 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두 척도는 총 8문항(친밀, 의존 각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간 내

적 일치도에 의한 성인애착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 이었고 하위 척도는 의존 $\alpha = .78$, 친밀 $\alpha = .54$ 로 나타났다. 이 연구대상 대학생의 성인애착 평균은 25.66이고 표준편차는 4.80이었다. 친밀 척도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과 쉽게 접촉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며 의존 척도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의존하고 의존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아탄력성 척도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1961, 1978)에 의해 개념화되고 개발된 이후 Klohenn(1996)에 의해 CPI(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상의 자아탄력성 관련 문항과 상관이 높은 문항들을 선별해내는 절차를 통해 최종 29개의 문항으로 개발되었고 타당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박현진(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그의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로 나타났다. 5점 리커트 방식인 자아탄력성 척도의 하위 척도는 자신감(9문항), 대인관계 효율감(8문항), 낙관성(10문항), 분노조절(2문항)로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자신감 $\alpha = .82$, 대인관계 효율감 $\alpha = .84$, 낙관성 $\alpha = .80$, 분노조절 $\alpha = .46$ 이었으며 전체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로 나타났다. 그런데 자아탄력성의 하위척도 중 분노조절의 신뢰도가 낮은 관계로 결과 및 해석부분에서 분노조절 척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배제하였다. 이 연구대상의 자아탄력성 평균은 89.49였고 표준편차는 16.40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적인 것을 의미한다.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11.0. for Windows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 평균, t-test, 분산분석, Scheffé의 사후검증, 피어슨 상관분석, 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관련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관련 특성에 따라 자아탄력성이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성별,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라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자아탄력성의 하위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중 성별에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표2>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더 높았다($t = 5.28, p < .001$). 특히 자아탄력성의 하위척도 중 자신감($t = 4.49, p < .001$), 대인관계 효율감($t = 3.12, p < .01$), 낙관성

($t=6.65, p<.001$)은 모두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모두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평균값이 더 높았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은 자신감이 더 높았고 대인관계상의 효율감도 더 높았으며 삶에 대해 더 낙관적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

성별	N ^a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M(S.D.)			
		자신감	효율감	낙관성	자아탄력성
남	117	29.74 (5.60)	25.72 (5.39)	34.51 (5.82)	95.86 (15.43)
여	243	26.88 (5.68)	23.72 (5.88)	29.95 (6.25)	86.36 (15.97)
t		4.49***	3.12**	6.65***	5.28***

** $p<.01$, *** $p<.001$

a, 결측치로 인해 자아탄력성의 하위 영역별로 N은 다소 차이가 있음

둘째, 대학생의 부모가 초혼후의 원래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혼, 재혼, 별거, 사망)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라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22, p<.01$).

구체적으로 하위척도별 비교를 실시한 결과 <표3> 자신감($t=2.92, p<.01$), 낙관성($t=4.17, p<.001$)이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라 달랐고 부모가 가족구조의 변화없이 원래의 가정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았으며 자신감이 더 높고 낙관적 태도도 더 높았다.

<표 3> 부모의 결혼 상태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

부모의 결혼상태	N ^a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M(S.D.)			
		자신감	효율감	낙관성	자아탄력성
원가정 지속	311	28.16 (5.79)	24.51 (5.83)	31.89 (6.58)	90.51 (16.56)
가족구조의 변동경험	47	25.53 (5.50)	23.60 (5.36)	28.51 (4.92)	83.20 (13.98)
t		2.92**	1.01	4.17***	3.22**

** $p<.01$, *** $p<.001$

a, 결측치로 인해 자아탄력성의 하위 영역별 사례수는 다소 차이가 있음

셋째, 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자아탄력성의 하위 척도 중 일부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4>). 모의 학력에 따라서 자아탄력성의 하위척도 중 자신감($F_{2,347}=3.73, p<.05$), 대인관계 효율감($F_{2,330}=3.13, p<.05$)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대학생의 학년, 부의 학력에 따라서는 자아탄력성 및 그 하위척도에

유의한 차가 없었다.

<표 4> 모의 학력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 및 추후분석결과

모의 학력	N ^a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M(S.D.) Scheffe' 검증			
		자신감	효율감	낙관성	자아탄력성
중졸	101	27.38 (5.51) ^a	24.59 (5.09) ^{ab}	32.09 (6.79)	89.86 (15.80)
고졸	196	27.66 (5.89) ^a	23.94 (5.95) ^a	31.13 (6.20)	88.81 (16.46)
전문대졸 이상	53	29.89 (5.79) ^b	26.15 (6.06) ^b	32.37 (7.03)	94.32 (17.17)
계	350	27.92 (5.81)	24.46 (5.77)	31.58 (6.49)	89.88 (16.43)
F		3.73*	3.13*	1.17	2.14

* $p<.05$

a, 결측치로 인해 자아탄력성의 하위 영역별로 N은 다소 차이가 있음

추후분석결과 모의 학력이 중졸, 고졸인 집단보다 대졸이상인 집단의 자신감 점수가 의미 있게 더 높았고 중졸인 집단과 고졸인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대인관계의 효율감은 모의 학력이 고졸인 집단보다 대졸이상인 집단의 점수가 의미 있게 더 높았고 중졸 집단과 고졸 집단간, 중졸 집단과 대졸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2. 부모간의 갈등, 성인애착과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1) 부모간의 갈등과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부모간의 갈등과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5). 그 결과 부모간의 갈등은 대학생의 자아탄력성($r=-.16, p<.01$)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자아탄력성의 하위척도 중 자신감($r=-.14, p<.01$), 낙관성($r=-.24, p<.001$)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간의 갈등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낮으며 구체적으로 자신감 및 낙관적 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되는 결과는 부모간의 갈등의 하위척도를 고려할 때 부모간의 갈등의 빈도나 강도보다는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되는 것이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보다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갈등빈도나 갈등강도는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거의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갈등해결은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비교적 뚜렷한 상관을 나타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수록 대학생의 자신감($r=-.33, p<.001$), 대인관계의 효율감($r=-.30, p<.001$), 낙관성($r=-.47, p<.001$)이 낮았고 전체적으로 자아탄력성($r=-.42, p<.001$)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부모간의 갈등과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자신감	효율감	낙관성	자아탄력성
갈등빈도	-.02	.05	-.04	-.00
갈등강도	-.02	.06	-.10	-.01
갈등해결	-.33***	-.30***	-.47***	-.42***
부모간의 갈등	-.14**	-.06	-.24***	-.16**

* p<.05, ** p<.01, *** p<.001

이 결과는 부모간의 갈등의 빈도나 강도보다는 부모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상존하는 것이 대학생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에 대한 대처의 과정과 결과가 자녀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다.

2) 성인 애착과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대학생의 애착과 자아탄력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6) 성인 애착은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r=.72$, $p<.001$), 친밀한 애착을 형성한 경우일수록 자아탄력성($r=.54$, $p<.001$)이 높으며 타인에 대한 신뢰 및 의존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r=.68$, $p<.0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척도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친밀한 애착을 형성한 경우일수록 또한 타인에 대한 의존가능성 및 타인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을수록 자신감이 높고 대인관계 효율감이 높으며 낙관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성인 애착과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자신감	효율감	낙관성	자아탄력성
의존	.59***	.52***	.70***	.68***
친밀	.47***	.45***	.56***	.54***
성인애착	.63***	.58***	.74***	.72***

* p<.05, ** p<.01, *** p<.001

3. 부모간의 갈등, 성인애착에 따른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1) 부모간의 갈등, 성인애착에 따른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회귀분석 결과(표 7) 부모간의 갈등과 성인애착은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54%까지 설명해주었으며 성인의존의 β 값이 .51로

가장 큰 값을 나타냈으며 다음은 성인친밀 $\beta=.27$, 갈등해결 $\beta=-.12$ 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타자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기대 및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갖는 것이 자아탄력성에 가장 크게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이어서 타인과 친밀하고 편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자아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부모간의 갈등의 하위요소 중에서 갈등해결도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었다.

<표 7> 부모간의 갈등 및 성인애착이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변인	자아탄력성		
	B	Beta	t
(Constant)	38.11		7.00***
갈등빈도	-.20	-.03	-.67
갈등강도	.27	.04	.85
갈등해결	-.96	-.12	-2.81**
의존	2.67	.51	11.33***
친밀	1.82	.27	6.47***
			F(5, 331)=77.10***
			R ² =.54,

* p<.05, ** p<.01, *** p<.001

2) 성별, 모의 학력,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간의 갈등, 애착에 따른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대학생의 성별, 모의 학력,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라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달랐으므로 이들 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대학생의 모의 학력, 부모간의 갈등, 성인애착은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57%까지 설명해주었다. 그 중 의존의 β 값이 .51로 가장 큰 값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밀 $\beta=.27$, 모의 학력 $\beta=.15$, 갈등해결 $\beta=-.11$ 의 순으로 나타났다. 역시 대학생 자신이 필요시 의지할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믿고, 타인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리고 동시에 타인과 편안하고 친밀한 관계를 확립할수록 자아탄력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회귀계수의 크기변화를 참고하면 이러한 영향과 관계는 성별이나 가족관련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크게 변화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8> 성별, 모의 학력,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간의 갈등 및 성인애착이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변인	자아탄력성		
	B	Beta	t
(Constant)	32.85		4.72***
갈등빈도	-.21	-.03	-.72
갈등강도	.45	.07	1.44
갈등해결	-.85	-.11	-2.47*
의존	2.72	.51	11.30***
친밀	1.80	.27	6.49***
성별	-2.26	-.07	-1.66
모의 학력	3.81	.15	4.00***
부모의 결혼상태	-.40	-.01	-.21
			F(8, 317)=52.62***
			R ² .57

* p<.05, ** p<.01, *** p<.001

IV. 결론 및 논의

앞서 논의한 연구결과와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이 다르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더 높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자신감, 대인관계의 효율감, 낙관성이 더 높다. 반면 학년에 따라서는 자아탄력성이 다르지 않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경우 전체적인 자아탄력성에 성차가 없었고 하위 영역 중 대인관계에서만 성차가 나타났던 선행연구의 결과(이은미·박인전, 2002)와 다르다. 더욱이 남아보다 여아가 대인관계에서의 자아탄력성이 더 높았던 점은 이 연구의 결과와 상반된다. 그러나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의 성차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만을 토대로 이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남학생의 자아개념이 여학생의 자아개념보다 일부 영역에서 더 긍정적이었다는 연구결과(김기정·이건만, 1991; 김현덕, 2000)에서 보듯 여학생의 경우 사회화 과정이 점차 여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아동기에서 청년기에 이르기 까지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에 성차가 없고 자아존중감의 성차에 대한 생각은 사회적 편견이 가져온 통념(송명자, 1999: 308)이라는 주장도 있으므로 자아탄력성의 성차에 대한 반복 연구를 통해 이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가족관련 특성 중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라서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다르다. 부모가 원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이혼, 재혼, 별거, 사망 등)보다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더 높다. 부모가 원가정을 유지하는 경우 양친이 대학생 자녀와 지속적 관계를 맺고 지지원이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 사망한 경우보다 대학생 자녀에게 기능적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결혼상태는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데 매우 미약했으므로 부모의 결혼상태 자체보다는 가족의 구조 변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경험하는 내용 및 전후의 부모 자녀관계를 통해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원가정이면서 갈등이 낮을 때는 이혼 가정이거나 갈등이 높은 원가정보다 대학생 자녀의 삶의 질이 더 높고, 가족 구조 뿐 아니라 부모간의 갈등이나 부모자녀관계 등의 가족 과정이 대학생 자녀의 적응에서 중요한 요인이었다(유희정, 2001)는 연구결과는 이러한 추론을 간접적으로 지지해준다고 본다.

한편 모의 학력에 따라서 자아탄력성의 하위 영역 중 자신감과 대인관계 효율감이 다르지만 부의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다르지 않다. 모의 학력이 높을 때 대학생의 자신감이 더 높고, 대인관계의 효율감이 높다. 단, 대인관계의 효율감은 모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와 고졸인 경우에 다르고 중졸인 경우는 다른 집단과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대부분의 가정에서 모가 일차적 양육자이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더 많으므로 모의 학력에 따른 자녀양육태도나 행동의 차이가 대학생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준 결과 일 수 있다. 모의 학력이 높을 때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맺는 기술이나 관련지식 등에 접할 기회가 더 있을 것이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달라서 그것이 자녀의 자신감 및 대인관계 효율감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부의 학력과 달리 모의 학력에 따라 대학생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나타난 이 연구의 결과는 자녀에 대한 모의 영향력이 대학생 시기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부의 경우와 달리 대학생 자녀의 자아감 및 적응 능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모의 학력에 따라 자아탄력성 전체는 차이가 없고, 모의 학력과 대학생이 지각한 대인관계 효율감이 비선형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연구를 통해 모의 학력과 자녀에 대한 기대, 상호작용 양식, 지지와 통제 행동 등을 고려하여 모의 학력과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의 관련성을 반복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간의 갈등은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부적인 상관을 가진다. 즉 부모간의 갈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낮고 구체적으로 자신감 및 낙관성이 낮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부모간 갈등의 하위척도를 고려할 때 부모간의 갈등의 빈도나 강도보다는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되는 것이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더 깊고 부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이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수록 대학생의 자신감 및 대인관계의 효율감이 낮고 낙관적 태도도 낮다. 선행연구들은 부모간의 갈등의 빈도나 강도가 아동의 적응과 관련되며

(권영옥·이정덕, 1999; 양희정, 1999; Amato & Keith, 1991; Cummings, et al., 1989; Cummings, et. al., 1991; Grych & Fincham, 1990; McClosky, et al., 1995; Wierson, et al., 1988) 갈등해결의 방식이나 정도(권영옥·이순형, 1999; Cummings, et al., 1989; Cummings, et. al., 1991)에 따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부모갈등의 빈도나 강도는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거의 상관을 보이지 않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와 다소 다르지만 갈등 해결의 영향력에 관한 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즉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부모는 자녀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 사회적 능력과 대처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갈등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긴장이 지속되므로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부모간의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리 나타난 점은 부모간의 갈등 상황에 대한 지각과 해석이 아동과 대학생간에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모간의 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에서 부모간의 갈등해결의 중재효과를 검토한 연구(권영옥·이순형, 1999)에 의하면 10세 아동의 경우에는 중재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2세 아동의 경우는 중재효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나이 어린 아동은 단순히 표면적인 갈등이 지속되는가 여부에 관심을 두지만 나이든 아동은 갈등 해결의 정도나 질까지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부모간의 갈등 해결을 좀더 정교하게 평가(권영옥·이순형, 1999)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학생인 경우 부모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빈도나 강도는 표면적 요소이므로 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대학생은 부모간의 갈등 해결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해결의 정도나 질이 대학생에게 더 뚜렷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의 나이가 들수록 부모간의 문제의 발생 여부나 빈도보다는 부모가 상호간의 갈등에 대처하는 과정과 해결의 질이 자녀의 발달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자아탄력성간의 상관은 친밀한 애착을 형성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으며 대인관계상의 의존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친밀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의지할 만한 대인관계가 있다고 기대할 때 대학생의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감 및 낙관적 태도가 높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안정애착 유형과 관련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고은정, 1997; Kobak & Sceery, 1988; Sroufe, Carlson, & Schulman, 1993)와 일치하고 가정환경의 위협요소(예, 부모의 낮은 학력, 가족구조의 결손, 부모의 실업,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지각 등)가 높더라도 적응이 유연한 청소년들의 부모애착 점수가 높았다(박지아, 2003)는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이 결과는 대인관계를 편안하게 느끼고 자기 주변의 타인들에게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개인에게 있어 심리적 지지자원으로 기능할 것이고 결국 불확실한 조건하에서 역경에 대처하는 능력, 즉 자아탄력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기

능은 외적 환경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킴으로서 가정환경의 위협요소가 있을지라도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부모간의 갈등 및 성인애착은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총 54% 설명하며 특히 성인 애착의 하위척도 중 의존의 설명력이 가장 크다. 그 외에 친밀과 갈등해결 변인이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이다. 그리고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관련 특성, 부모간의 갈등, 성인애착은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총 57% 설명하는데 이 중 설명력이 가장 큰 것은 의존 변인이며 이어서 친밀, 모의 학력, 갈등해결 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애착은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예언하는 주요한 변인이며 성인애착 중에서도 의존은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예언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 볼 수 있다. 대학생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타인에게 의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적응자원이 되는 자아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인애착 요인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성인애착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정보를 얻기 위한 후속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우선 이 연구의 대상이 특정 지역의 일부 대학생으로 제한되었으므로 후기 청소년 전체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렵고, 연구방법이 자기 보고식 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대학생 개인의 반응 성향에 따라 자아탄력성이 과대평가되었거나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 중 분노조절의 내적 일치도가 낮아 결과제시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아탄력성에 관한 결과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성인애착 척도의 신뢰도는 양호하지만 성인 애착의 하위 척도 중 친밀 척도의 내적 일관성이 낮으므로 하위 척도와 관련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제한점이 있다.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성격자원인 자아탄력성이 성인애착을 통해 예언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고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선 성인애착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해주었다. 그리고 애착에 대한 연구는 그간에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후기 청소년의 성인애착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실제적으로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이해하고 적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인애착 및 자아탄력성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기 상황에서 자아의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아탄력성을 성인애착과 관련지어 새롭게 접근함으로써 성인애착 연구에 대한 관심을 제기했고 후후 연구의 과제를 제시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 접수일 : 2004년 05월 15일
- 심사일 : 2004년 05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07월 22일

【참 고 문 헌】

고은정(1997).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영옥·이순형(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부부갈등해
결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20(4), 61-74.

권영옥·이정덕(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
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권영옥·이정덕(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
지**, 20(1), 115-133.

김기정·이건만 (1991). 자아개념의 발달적 변화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29(4), 110-141.

김지현(1997). **성인 초기 애착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자기가
치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덕(2000). 전문대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생활적응도에 관한 연
구. **교육학연구**, 38(3), 57-79.

김환복(1984).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의 가정환경적 특성 분
석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철·이길홍·민병근(1984). 학생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문제행
동 유형간의 관계분석. **중앙의대지**, 9(4), 561-582.

박은경(1993). **애착유형이 자존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아(2003). **적응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애착 간의 관계
-적응유연 청소년, 위험 청소년, 유능 청소년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현진(1997).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
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명자(1999). **발달심리학**. 서울:학지사.

신노라(2000). **성인 애착 유형과 대인불안 수준의 관계**. 고려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희정(1999).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과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옥선화(1985).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 서울 : 사단법인 한국부인
회총본부.

유희정(2001). 부모의 이혼과 부모간의 갈등이 대학생 자녀의 적
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3(2), 57-78.

이귀선·정남운(2003).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과
효과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
(4), 779-793.

이은미·박인전(2002).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7(1), 3-24.

장경문(2003).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

경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4), 143-161.

장휘숙(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
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5(1), 101-121.

지선근·한종철(1999). 부모의 지지 및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
리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
담 및 심리치료**, 11(1), 109-130.

Amato, P. R. & Keith, B.(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
-being of children : A meta analysis. **Psychological Bul
letin**, 101, 213-232.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s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
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
453.

Block, J.(1978). **The Q-sort method of personality assessment
and Psychiatric research**. Palo Alto, CA. Consulting Psy
chologist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in 1961).

Block, J. H. & Block, J.(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Block, J. & Kremen, A.(1996). IQ and ego-resiliency: Con
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
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Cummings, J. S., Pellegrini, D., Notarius, C. & Cummings, E.
M.(1989). Children's responses to angry adult behavior
as a function of marital distress and history of inter
parent hostility. **Child Development**, 60, 1035-1043.

Cummings, E. M., Zahn-Waxler, C. & Radke-Yarrow, M.
(1981). Young children's responses to expressions of
anger and affection by others in family. **Child Devel
opment**, 52, 1274-1281.

Gottman, J. M. & Katz, L.(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
mental Psychology**, 25, 373-381.

Grych, J. H. & Fincham, F. D.(1990). Marital discord and chil
dren's adjustment :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
dren perception of interperson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Harold, G. T. & Conger, R. D.(1997). Marital conflict and
adole scent distress : The role of adolescent awareness.

- Child Development*, 68, 333-350.
- Hazan, C. & Shaver, P.(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Kenny, M. E. & Rice, K. G.(1995). Attachment to parent and adjustment in late adolescent college students: current status, applications and future consider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3), 433-456.
- Klohenn, E. C.(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 Kobak, R. R. & Sceery, A.(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Lapsley, D.K., Rice, K.G. & Fitzgerald, D.P.(1990). Adolescent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561-565.
- Maccoby, E. E.(1980). *Social development :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N.Y.:Harcourt Brace Jovanovich.
- McClosky, L. A., Figueredo, A. J. & Koss, M. P.(1995). The effect of systemic family violence on children's mental health. *Child Development*, 66, 1239-1261.
- Needle, R. H., Su, S. S. & Doherty, W. J.(1990). Divorce, remarriage, and adolescence substance use: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57-169.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1994). Adolescents' perception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 father,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579-601.
- Robins, R. W., John, O. P., Caspi, A., Moffitt, T. E. & Stouthamer-Loeber, M.(1996). Resilient, overcontrolled, and undercontrolled boys: three replicable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57-171.
- Sroufe, L. A., Carlson, E. & Schulman, S.(1993). Individuals in relationships : Develop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In D. C. Funder, R. D. Parke, C. Tomlinson-keasey, & K. Widaman(Eds.). *Studying lives through time: Approaches to personality and development*, 315-42, Washington, DC:APA.
- Werner, E. E. & Smith, R. S.(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A longitudinal study of resilient children and youth*. N.Y. McGraw-Hill.
- Wierson, M., Forehand, R. & McCombs, A.(1988). The relationship of early adolescent functioning to parent-reported and adolescent-perceived conflic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 707-718.